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7년 01월 18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 보 실

전화: 02-3703-7431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 톱4 선정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1월 17일 한경비즈니스가 발표한 2017년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에서 톱4에 선정됐다. 작년(5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다.

2008년 시작된 이 조사에는 매해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싱크탱크의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을 평가한다. 올해로 9주년을 맞는 연구원은 기존의 '빅5(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발표한 'In China's Shadow(중국의 그늘아래서)'는 중국기업의 실체 규명을 통해 대북제재 방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적시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원은 2015년 11월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CASS)이 발표한 '세계100대 싱크탱크'에도 9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참고 자료] 한경비즈니스 선정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 순위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91위) 선정되었습니다.

한경비즈니스 선정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부문 순위

외교·안보 부문 조사 결과						
순위	순위 변동	평가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1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197	176	182	555
2	—	통일연구원	157	151	149	457
3	↑1	세종연구소	149	157	142	448
4	↑1	아산정책연구원	109	103	113	325
5	↓2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	93	104	97	294
6	↑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06	80	95	281
7	↓1	동아시아연구원	86	88	76	250
8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	51	67	165
9	↑3	제주평화연구원	54	48	56	158
10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6	40	39	105
11	↑3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38	27	31	96
12	↑13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2	45	22	79
13	↑9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1	31	26	78
14	↓5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1	17	27	55
15	신규	동아시아재단	27	17	3	47
16	↑11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21	6	11	38
17	↓9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3	10	14	37
18	↓6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2	13	11	36
19	↑3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5	8	14	27
20	↑6	한국안보문제연구소	4	10	10	24
21	↓8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5	4	11	20
22	↓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	11	6	19
23	↑4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7	0	4	11
24	↓3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4	6	0	10
25	↓5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	4	0	5
26	↓7	연세대 북한연구원	1	1	2	4
27	↓3	평화네트워크	1	0	0	1
27	신규	성균중국연구소	0	1	0	1

■ 외교·안보 부문은 15위까지 '100대 싱크탱크'에 포함